

# Chung Buk Vision 2012

##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

| 김진덕



# Chung Buk Vision 2012

##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

2012. 5.



충북발전연구원  
Chungbuk Research Institute

# | Contents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[요약] | 6 |
|------|---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 | 문제제기                    | 10 |
| 1.1 |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| 10 |
| 1.2 |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            | 11 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2   | 노동시장의 현황              | 14 |
| 2.1 | 세계적 현황                | 14 |
| 2.2 | 전국현황                  | 15 |
| 2.3 | 충북지역 일반현황             | 16 |
| 2.4 |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| 18 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3   |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          | 22 |
| 3.1 | 인력의 고학력화               | 22 |
| 3.2 | 청년층이 느끼는 ‘괜찮은 일자리의 감소’ | 24 |
| 3.3 | 저임금·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       | 25 |

|   |            |    |
|---|------------|----|
| 4 |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| 32 |
|---|------------|----|

5

**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..... 36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5.1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 |
| 5.2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‘청년인력 코디네이터’<br>인력 확보 ..... | 37 |
| 5.3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38 |
| 5.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‘괜찮은 일자리’ 의 확충 .....                  | 39 |
| 5.5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|
| 5.6 ‘중소기업백서’ 발간 및 ‘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’ 등을 통한<br>정보제공 .....   | 42 |
| 5.7 청년취업통계DB 구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 |
| 5.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43 |
| 5.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4 |
| 5.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44 |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[참고문헌] .....</b> | <b>46</b>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# | Contents | 표목차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〈표 1〉 기업규모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(2011년 상반기) .....       | 11 |
| 〈표 2〉 산업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(2011년 상반기) .....           | 11 |
| 〈표 3〉 최근 청년실업률(자)과 청년층 체감실업률(자) 비교 .....        | 16 |
| 〈표 4〉 성별, 연령별,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.....         | 17 |
| 〈표 5〉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변화 추이 .....                  | 18 |
| 〈표 6〉 충북지역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수 .....                   | 19 |
| 〈표 7〉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직업(상위 5개 직업) .....             | 20 |
| 〈표 8〉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 추이 .....               | 22 |
| 〈표 9〉 주요 산업 취업계수 추이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24 |
| 〈표 10〉 공공행정 및 대기업 취업자의 청년층 규모 .....             | 24 |
| 〈표 11〉 광업 및 제조업 비교현황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6 |
| 〈표 12〉 광업 및 제조업 1인당급여액(상위20개업종) 비교 .....        | 26 |
| 〈표 13〉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급여액(상위20개 업종) 비교 ..... | 28 |
| 〈표 14〉 충북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 현황(2009년) .....    | 33 |
| 〈표 15〉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 현황 .....                | 34 |
| 〈표 16〉 1인당 급여액 상위지역 간 비교 .....                  | 36 |

# | Contents | 그림목차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〈그림 1〉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.....                   | 10 |
| 〈그림 2〉 미국경제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 .....                   | 14 |
| 〈그림 3〉 최근 청년층 고용률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〈그림 4〉 OECD 주요국 15~24세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(2009년) ..... | 16 |
| 〈그림 5〉 충북지역 청년층 직업별 취업자수 .....                  | 19 |
| 〈그림 6〉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산업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〈그림 7〉 지역별 진학자 비율 추이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3 |
| 〈그림 8〉 대학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3 |
| 〈그림 9〉 청년층 구직단념 이유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25 |
| 〈그림 10〉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보유현황-학력수준별/전략산업별 .....    | 29 |
| 〈그림 11〉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32 |
| 〈그림 12〉 인력수급네트워크 구축(안) .....                    | 41 |

# 요약

□ **최근 충북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**

- 청년층 취업자수 : 2000년 14만2천명(21.4%) > 2011년 10만7천명(14.3%)
-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률 및 증가하는 실업률
  - 2011년 청년층 고용률은 38.3%로 200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
  - 2011년 청년층 실업률은 6.2%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
- 201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는 3.3%의 인력부족률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
  - 300인 미만 사업체 : 부족인원 8,333명, 3.7%의 부족률
  -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.9%로 가장 높은 부족률 기록

□ **충북지역 청년층 미스매치의 원인은 인력의 고학력화, 관찮은 일자리의 감소, 저임금·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임**

- 2010년 현재 충북지역의 진학률은 85.7%로 2000년 72.3%보다 13.5% 상승
-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도 충북지역의 진학비율은 높은 수치
  - 충북(85.7%) > 충남(85.1%) > 대전(80.2%) > 전국(79.0%)
- 충북지역 청년층의 구직 단념 이유로 전공이나 경력,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'관찮은 일자리의 부족'을 지적
- 충북지역 제조업의 1인당급여액은 2009년 기준 전국 평균과 약 2백여만원의 차이 발생

-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>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
  -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과 전국 평균 급여액 상위 산업 간의 급여차이 존재
    -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 9백만원, 20위 산업 간 차이는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
  -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고졸이하의 저학력 인력 비중이 가장 큼
- 이러한 청년층의 미스매치는 다양한 측면으로 파급되어 결국에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
- 취업의욕 및 자신감 감소 등의 개인의 인적능력을 저하
  - 도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역외에서 구직하려는 인력 증가
    - 전문대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: 도내 56.2% > 도외 43.8%
    - 대학교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: 도내 36.3% > 도외 63.7%
  - 실업자수의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 초래
  -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,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의 자원 낭비 초래
  -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 기반 붕괴 우려
-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
-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우 임금측면에서 비교적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음
    -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업자체적, 지리적, 사회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
  -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산업 이외의 고임금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 여겨짐
  -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‘청년인력 코디네이터’ 인력의 확보 필요
  -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
    - 혁신도시, 첨단의료복합단지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지역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및 특성화 유도
    - 석·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 및 이전기관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‘(가칭)교육

과학정보통신융합대학원대학교' 설립 고려

-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'괜찮은 일자리'의 확충
  - 혁신도시, 첨단의료복합단지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
  - 유치기업이 지역인재 신규채용 시 다양한 보조금 지급
-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및 '중소기업백서' 발간 및 '일자리 의무등록제도' 추진
  -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
-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및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
-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
  - 중·고등교육기관, 지역대학, 학부모 등에 지역의 고용시장 및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

# 01

## 문제제기

1.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
2.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

# 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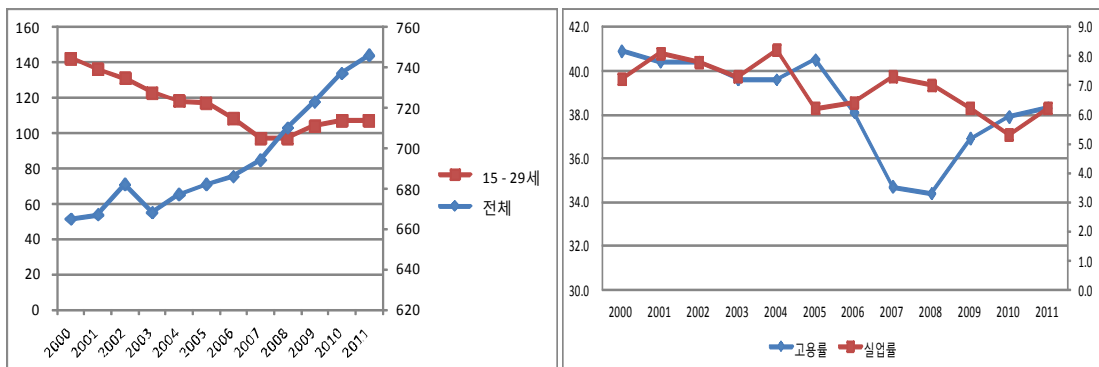
## 문제제기

### 1.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

- 2011년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10만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74만6천명의 약 14.3%를 차지함
  - 청년층 취업자수의 경우 2000년 14만2천명에서 2011년 10만7천명으로 3만5천명 감소하였으며, 비중면에서도 2000년 21.4%보다 7.1%p 감소한 14.3%를 기록함
-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률 및 증가하는 실업률
  -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38.3%로 2000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
  - 충북지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1년 현재 6.2%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

< 1 >

(단위 : 명, %)

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## 1.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

-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측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
- 201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는 3.3%의 인력 부족률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대기업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
  - 300인 미만 사업체 : 부족인원 8,333명, 3.7%의 부족률
  -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.9%로 가장 높은 부족률을 보임

< 1> (2011 ) (단위 : 명, %)

| 구 모      | 현원      | 구인인원   | 채용인원   | 미충원인원 | 부족인원  | 부족률 | 채용계획인원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
| 5인 이상 전체 | 259,313 | 21,745 | 16,769 | 4,976 | 8,847 | 3.3 | 9,726  |
| 300인 미만  | 219,456 | 18,289 | 13,171 | 5,118 | 8,333 | 3.7 | 9,102  |
| 5~ 9인    | 42,079  | 3,436  | 2,553  | 882   | 1,787 | 4.1 | 1,920  |
| 10~29인   | 64,647  | 5,556  | 4,122  | 1,434 | 2,446 | 3.6 | 2,616  |
| 30~99인   | 64,080  | 5,004  | 3,202  | 1,802 | 2,323 | 3.5 | 2,504  |
| 100~299인 | 48,650  | 4,294  | 3,294  | 1,000 | 1,777 | 3.5 | 2,062  |
| 300인 이상  | 39,857  | 3,456  | 3,598  | -142  | 514   | 1.3 | 624    |

주) 부족률=부족인원/현원

자료 : 고용노동부,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

< 2> (2011 ) (단위 : 명, %)

| 산업분류            | 현원      | 구인인원   | 채용인원   | 미충원인원 | 부족인원  | 부족률 | 채용계획인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
| 전산업(5인이상)       | 259,313 | 21,745 | 16,769 | 4,976 | 8,847 | 3.3 | 9,726  |
| 광업              | 740     | 27     | 22     | 5     | 25    | 3.3 | 19     |
| 제조업             | 123,836 | 9,121  | 6,042  | 3,080 | 5,045 | 3.9 | 5,470  |
|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| 134,737 | 12,597 | 10,706 | 1,891 | 3,778 | 2.7 | 4,236  |

주) 부족률=부족인원/현원

자료 : 고용노동부,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보고서



Chung  
Buk  
Vision  
2012

# 02

## 노동시장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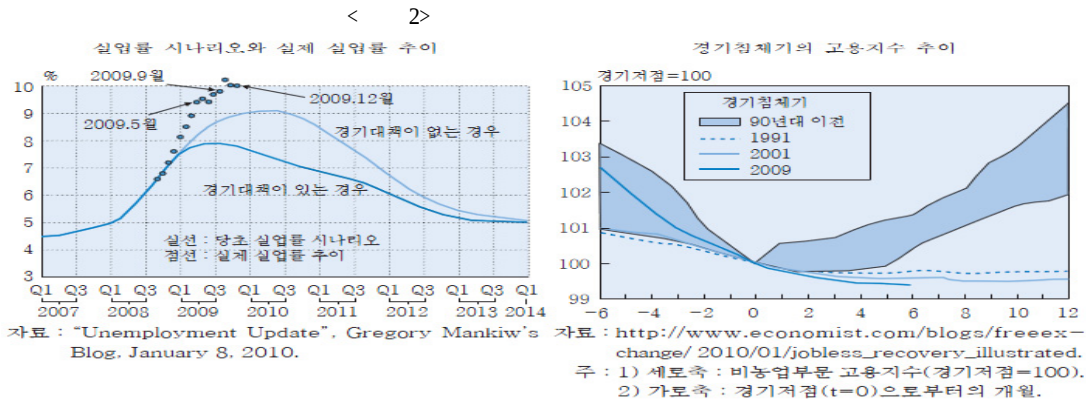
1. 세계적 현황
2. 전국현황
3. 충북지역 일반현황
4.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

# 02

## 노동시장의 현황

### 2.1 세계적 현황

- 최근 노동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‘고용 없는 경기회복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
- 미국경제의 경우에도 대규모 재정투입에 의한 고용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실업률 상승을 8%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오바마 경제팀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상황임 (산업연구원, 2010)



자료 : 산업연구원, 기업의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, 2010

- 일본의 경우에도 총무성이 발표한 7~9월 노동력 조사 상세집계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적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완전실업자수는 277만명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의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<sup>1)</sup>

## 2.2 전국현황

### 2.2.1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 및 체감실업률의 증가

- 2011년 4/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0.2%로 경기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(2007년 4/4분기 42.1%)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
-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청년층 수요의 감소가 아직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유희인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

< 3 >

(단위 : %)



주 1) 청년층 고용률 = (15~29세 인구 중 취업자수) / (15~29세 인구)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- 2010년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(8.6%)은 청년실업률보다 2.7배 높은 23.0%로 청년층의 약 1/4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<sup>2)</sup>
- 즉 전반적인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취업애로층이 확대되고 있어 청년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임

1) 고용노동부, 해외노동동향, 2012.1.5

2)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, 2010

< 3>

( )

( )

(단위 : %, 만 명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2009년        | 2010년 1~6월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청년실업률(청년실업자)         | 8.1 (34.7)   | 8.6 (37.0)   |
| 청년층 체감실업률(청년층 취업애로층) | 22.9 (115.9) | 23.0 (116.2) |

주 1) 청년층 취업애로층을 체감실업자로 간주하고 계산

2)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청년층 취업애로층(실업자+비자발적 단시간 취업자+취업준비경제활동인구+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+기타)을 수정 청년층 경제활동인구(취업자+실업자+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+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+기타)로 나누어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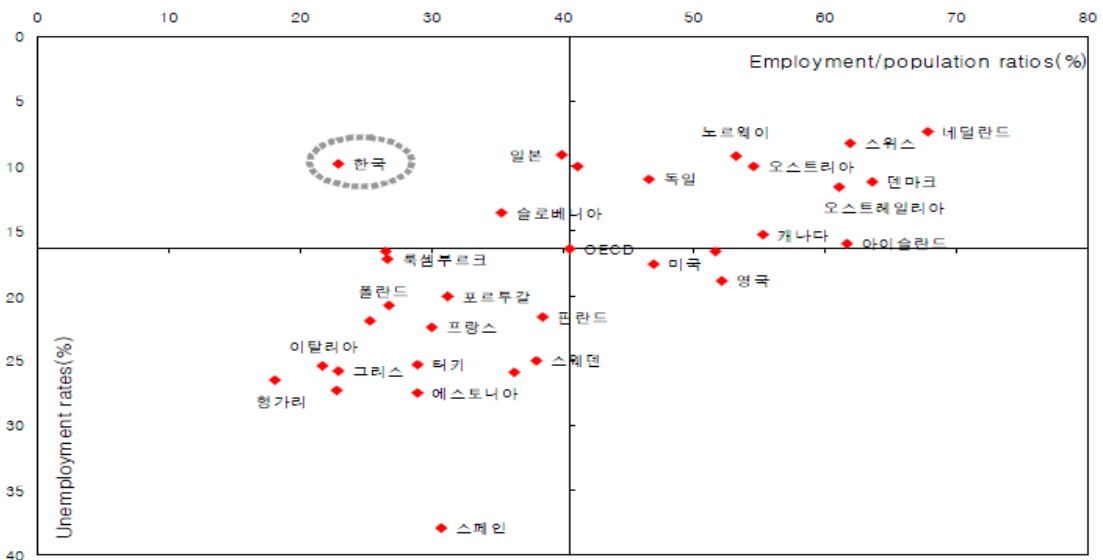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, 2010

- 이를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볼 때 2009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저실업 저고용 국가로 분류되는 실정임

< 4> OECD

15 ~ 24

(2009 )



주) 축과 Y축의 기준선은 OECD 가중평균선

자료 :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, 2010

## 2.3 충북지역 일반현황

### 2.3.1 경제활동 참여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함

- 대졸이상 학력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05년 대비 41.71%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제활동 참여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
- 2011년 현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현재 초졸 이하 12만4천명, 중졸 8만5천명, 고졸 30만6천명, 대졸이상은 24만8천명으로 나타났음
-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~29세 인구는 05년 대비 -8.55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

< 4> , ,

(단위 : 천명, %)

| 구 분       |        | 05년(A) | 06년 | 07년 | 08년 | 09년 | 10년 | 11년(B) | 비교증감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
| 교육<br>정도별 | 계      | 698    | 701 | 710 | 726 | 739 | 753 | 764    | 9.46   |
|           | 초졸 이하  | 141    | 138 | 140 | 132 | 128 | 124 | 124    | -12.06 |
|           | 중졸     | 93     | 90  | 85  | 90  | 85  | 85  | 85     | -8.60  |
|           | 고졸     | 289    | 287 | 291 | 299 | 301 | 306 | 306    | 5.88   |
|           | 대졸이상   | 175    | 187 | 194 | 204 | 225 | 238 | 248    | 41.71  |
|           | 전문대    | 59     | 67  | 70  | 67  | 70  | 76  | 89     | 50.85  |
|           | 대학교    | 117    | 120 | 124 | 138 | 155 | 162 | 160    | 36.75  |
| 연령별       | 계      | 698    | 701 | 710 | 726 | 739 | 753 | 764    | 9.46   |
|           | 15~19세 | 7      | 6   | 6   | 5   | 4   | 6   | 7      | 0.00   |
|           | 20~29세 | 117    | 109 | 99  | 99  | 107 | 107 | 107    | -8.55  |
|           | 30~39세 | 174    | 173 | 175 | 179 | 175 | 175 | 168    | -3.45  |
|           | 40~49세 | 193    | 192 | 196 | 203 | 205 | 205 | 205    | 6.22   |
|           | 50~59세 | 109    | 120 | 131 | 140 | 146 | 156 | 166    | 52.29  |
|           | 60세이상  | 97     | 100 | 103 | 100 | 101 | 105 | 111    | 14.43  |

주) 비교증감 = [(B-A)/A]×100%
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### 2.3.2 청년실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

-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의 비중은 2011년 현재 14.3%로 전국평균 16.0%보다 낮은 상황임
  - 2011년 전국 청년층 취업자 비중(16.0%) > 충북 청년층 취업자 비중(14.3%)

- 또한 2000년 이후 주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~29세의 취업자 수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(-1.9%) 보다 낮은 -2.2%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

< 5>

(단위 : 천명, %)

| 구 분 |        | 2000년  |      | 2011년  |      | 연평균<br>증가율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   |        | 취업자수   | 비중   | 취업자수   | 비중   |            |
| 전 국 | 합 계    | 21,156 | 100  | 24,244 | 100  | 1.2        |
|     | 15~19세 | 389    | 1.9  | 227    | 0.9  | -4.4       |
|     | 20~29세 | 4,490  | 21.2 | 3,652  | 15.1 | -1.9       |
|     | 30~39세 | 6,137  | 29.0 | 5,786  | 23.9 | -0.5       |
|     | 40~49세 | 5,277  | 24.9 | 6,611  | 27.2 | 2.1        |
|     | 50~59세 | 2,899  | 13.7 | 5,083  | 21.0 | 5.3        |
|     | 60세 이상 | 1,963  | 9.3  | 2,886  | 11.9 | 3.6        |
| 충 북 | 합 계    | 665    | 100  | 746    | 100  | 1.1        |
|     | 15~19세 | 12     | 1.8  | 7      | 0.9  | -3.0       |
|     | 20~29세 | 130    | 19.5 | 100    | 13.4 | -2.2       |
|     | 30~39세 | 174    | 26.2 | 164    | 22.0 | -0.5       |
|     | 40~49세 | 162    | 24.4 | 202    | 27.0 | 2.0        |
|     | 50~59세 | 99     | 14.9 | 164    | 22.0 | 4.8        |
|     | 60세 이상 | 88     | 13.2 | 110    | 14.7 | 2.1        |

주) 연평균증가율은 '00 ~ '11의 연평균증가율을 의미  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## 2.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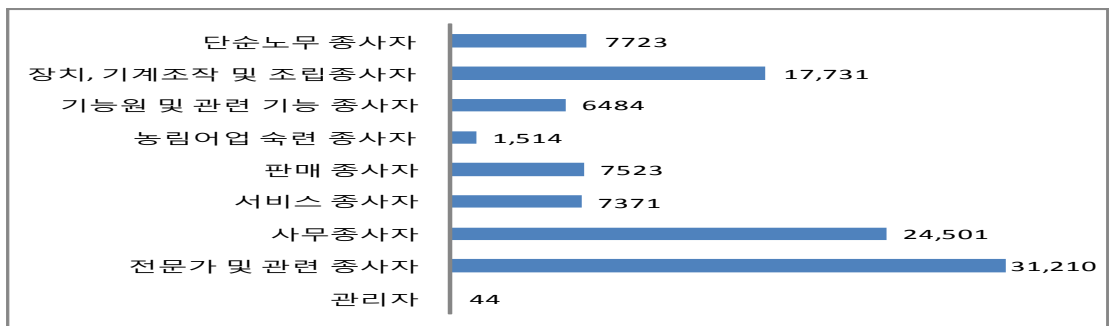
### 2.4.1 취업실태분석

-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'제조업', '사무관련직'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았음
- 2010년 기준으로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2,553명 31.3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  -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(12.5%), 도매 및 소매업(11.9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10.0%) 순으로 나타났음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원     | 비중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| 1450   | 1.4  |
|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4    | 0.4  |
|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,553 | 31.3 |
|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              | 107    | 0.1  |
| 하수 ·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   | 160    | 0.2  |
|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725  | 2.6  |
|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| 12,386 | 11.9 |
| 운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133  | 2.0 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| 7,630  | 7.3  |
|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| 1,184  | 1.1 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| 4,271  | 4.1 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              | 850    | 0.8  |
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| 3,715  | 3.6  |
|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 | 4,304  | 4.1  |
|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          | 2,621  | 2.5  |
|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13,010 | 12.5 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10,383 | 10.0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| 1,552  | 1.5  |
| 협회·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| 2,278  | 2.2  |
|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| 413    | 0.4  |

자료 : 통계청,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

- 2010년 충북지역 청년층의 직종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1,210명으로 가장 많았음
  - 다음으로 사무종사자(24,501명), 장치,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(17,731명), 판매종사자(7,523명) 순으로 나타났음



자료 : 통계청,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

## 2.4.2 취업요구분석

- 충북지역 청년층은 ‘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, 보건·교육업 및 기타산업’, ‘사무관리직’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- 충북지역 청년층이 희망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, 보건·교육업 및 기타산업이 49.3%로 가장 많았음
  - 다음으로는 전기·가스업, 운수업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금융·보험업 20.5%, 광업, 제조업 16.6%순으로 나타났음

< 6 >
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

- 충북지역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사무종사자로 24.5%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-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.6%, 서비스종사자 19.8% 순으로 나타났음

< 7 >

( 5 )

(단위 : 명, %)

| 희망직업         | 인원    | 비중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  | 1,746 | 21.6 |
| 사무종사자        | 1,978 | 24.5 |
| 서비스종사자       | 1,596 | 19.8 |
|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| 713   | 8.8  |
| 판매종사자        | 647   | 8.0  |

주) 상위 5개 직업

자료 : 통계청,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

# 03

##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

1. 인력의 고학력화
2. 청년층이 느끼는 '괜찮은 일자리의 감소'
3. 저임금 · 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

# 03

##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

### 3.1 인력의 고학력화

- 2010년 현재 충북지역의 진학률은 85.7%로 2000년 72.3%보다 13.5% 상승
  - 전국 진학자 비율 : 2000년(68.0%) → 2010년(79.0%)
  - 충북 진학자 비율 : 2000년(72.3%) → 2010년(85.7%)

< 8 >

(단위 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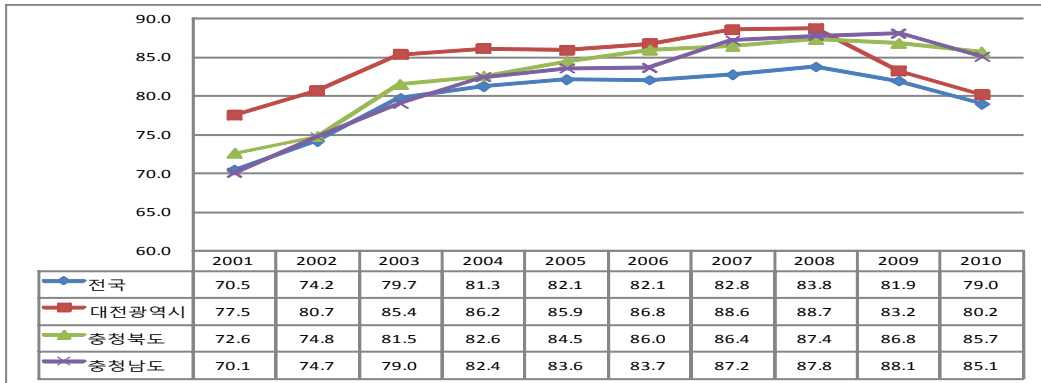
|    | 구분  | 2000년   | 2005년   | 2010년  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국 | 졸업자 | 764,712 | 569,272 | 633,539 |
|    | 진학자 | 519,811 | 467,508 | 500,282 |
|    | 비율  | 68.0    | 82.1    | 79.0    |
| 충북 | 졸업자 | 23,469  | 18,285  | 19,128  |
|    | 진학자 | 16,970  | 15,447  | 16,400  |
|    | 비율  | 72.3    | 84.5    | 85.7    |

주 1) 2010년까지 졸업자 및 진학자는 일반계고+전문계고  
 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교육통계

-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도 충북지역의 진학비율은 높은 수치를 나타냄
  - 충북(85.7%) > 충남(85.1%) > 대전(80.2%) > 전국(79.0%)

< 7>

(단위 : %)


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교육통계

○ 고학력 인력의 증가는 한정된 일자리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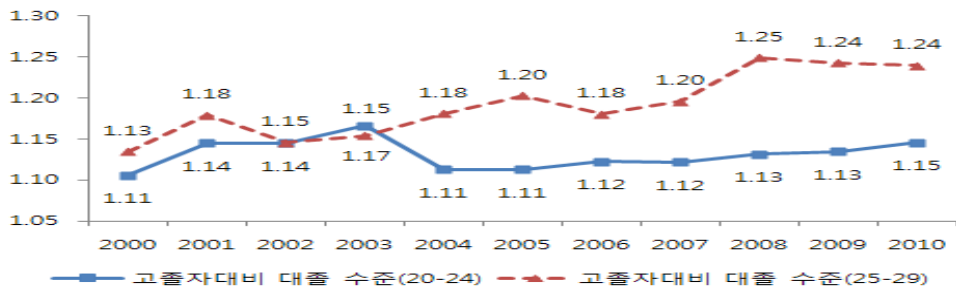
- 이러한 고학력화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

○ 고학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요구임금과 실제임금 간의 괴리를 발생시킴

- 고졸자의 월급여를 1로 할 때, 동일 연령대 대졸 이상의 월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  - 20~24세 : 고졸자를 1로 했을 때 대졸 수준은 1.15배
  - 20~29세 : 고졸자를 1로 했을 때 대졸 수준은 1.24배
- 즉, 고학력이 이루어질수록 동일 연령의 고졸자대비 임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

< 8>

(단위 : 배)



주 1) 20~24세 고졸자의 월급여를 1로 할 때 동일 연령대 대졸 이상의 월급여 수준

2) 24~29세 고졸자의 월급여를 1로 할 때 동일 연령대 대졸 이상의 월급여 수준

자료 : 고용노동부, 고용노동통계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

### 3.2 청년층이 느끼는 ‘괜찮은 일자리의 감소’

- 세계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 역시 산업구조가 고용절약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임
  - 2007년 전 산업의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8.2명으로 2005년 8.7명보다 0.5명 하락하였음
    - 취업계수란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
  - 산업구조 중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2007년 3.0명으로 2005년 3.4명 보다 0.4명이 감소한 실정임

< 9>

(단위 : 명/10억, %)

| 구분   | 2005년 | 2006년 | 2007년 | 증감률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05~06년 | 06~07년 |
| 전산업  | 8.7   | 8.4   | 8.2   | -3.4   | -2.4   |
| 제조업  | 3.4   | 3.2   | 3.0   | -5.9   | -6.3   |
| 건설업  | 10.5  | 11.1  | 10.7  | 5.7    | -3.6   |
| 서비스업 | 13.1  | 12.9  | 12.8  | -1.5   | -0.8   |

주) 취업계수 :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

자료 :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, 2010

- 2009년 현재 대기업과 공공행정기관 등 ‘괜찮은 일자리’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
  - 청년층은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‘괜찮은 일자리’에 관심을 두고 취업하기를 갈망함
  - 하지만 대기업의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.0%로 1993년 39.3%에서 18.3%p 감소
  - 공공행정기관 역시 2009년 10.9%로 1993년 26.5%보다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
< 10>

(단위 : 만명, %)

| 구분          | 1993       | 2002       | 2009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공공행정        | 16.1(26.5) | 8.3(11.8)  | 11.2(10.9) |
| 300인 이상 대기업 | 71.5(39.3) | 40.8(25.0) | 41.7(21.0) |

주) 괄호 안은 비중

자료 :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, 2010

- 충북지역 청년층 또한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로는 전공이나 경력,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‘괜찮은 일자리’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
  - 충북지역 청년층의 구직단념이유를 살펴보면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1.5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
  -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17.5%, 교육,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12.4%의 순으로 나타났음

&lt; 9 &gt;

(단위 : %)



자료 : 통계청,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

### 3.3 저임금-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

- 충북지역 제조업의 1인당급여액은 전국 평균과는 약 2백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현실임
  -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 : 117,526명(전국비중 : 4.77%)
  - 전체 급여액에서 충북지역의 비중 : 3,437,255백만원(전국비중 : 4.49%)
  -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→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

| 시도별 | 2009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|
|     | 사업체수(개) | 종사자수(명)   | 비중     | 급여액(백만원)   | 비중     | 1인당급여액   | 순위 |
| 전 국 | 58,377  | 2,465,265 | 100.00 | 76,502,548 | 100.00 | 31.03218 |    |
| 서 울 | 5,097   | 131,987   | 5.35   | 3,263,758  | 4.27   | 24.72787 | 14 |
| 부 산 | 3,826   | 125,589   | 5.09   | 3,245,591  | 4.24   | 25.84296 | 13 |
| 대 구 | 2,871   | 95,301    | 3.87   | 2,238,973  | 2.93   | 23.4937  | 15 |
| 인 천 | 4,299   | 156,598   | 6.35   | 4,203,440  | 5.49   | 26.84223 | 12 |
| 광 주 | 1,069   | 56,966    | 2.31   | 1,793,308  | 2.34   | 31.48032 | 6  |
| 대 전 | 729     | 32,937    | 1.34   | 1,024,099  | 1.34   | 31.09266 | 7  |
| 울 산 | 1,254   | 138,657   | 5.62   | 6,799,683  | 8.89   | 49.03959 | 1  |
| 경 기 | 20,112  | 726,109   | 29.45  | 21,395,413 | 27.97  | 29.46584 | 9  |
| 강 원 | 826     | 32,982    | 1.34   | 889,018    | 1.16   | 26.95464 | 11 |
| 충 북 | 2,081   | 117,526   | 4.77   | 3,437,255  | 4.49   | 29.24676 | 10 |
| 충 남 | 2,934   | 183,493   | 7.44   | 5,955,920  | 7.79   | 32.45857 | 4  |
| 전 북 | 1,624   | 74,301    | 3.01   | 2,263,589  | 2.96   | 30.46512 | 8  |
| 전 남 | 1,364   | 67,892    | 2.75   | 2,542,503  | 3.32   | 37.44923 | 2  |
| 경 북 | 4,020   | 211,823   | 8.59   | 6,808,158  | 8.90   | 32.14079 | 5  |
| 경 남 | 6,105   | 309,133   | 12.54  | 10,563,156 | 13.81  | 34.17026 | 3  |
| 제 주 | 166     | 3,971     | 0.16   | 78,684     | 0.10   | 19.81466 | 16 |

주) 1인당급여액의 경우 급여액에서 종사자수를 나눈 수치임

자료 : 통계청, 광업·제조업조사

- 광업 및 제조업 중 1인당급여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 
다음으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음

| 2009년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산업분류              | 사업체수 | 종사자수   | 급여액(백만원)  | 1인당급여액   |
| 석유 정제품 제조업        | 98   | 9,849  | 562,462   | 57.10854 |
|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| 36   | 79,177 | 4,517,730 | 57.05862 |
|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     | 467  | 24,079 | 1,198,033 | 49.75427 |
| 철도장비 제조업          | 72   | 4,834  | 234,598   | 48.53082 |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| 10    | 2,736   | 130,229   | 47.59832 |
|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     | 1,114 | 131,367 | 6,042,589 | 45.99777 |
| 항공기,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 | 64    | 7,851   | 359,380   | 45.77506 |
|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    | 49    | 7,110   | 313,024   | 44.02588 |
|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| 431   | 20,044  | 865,383   | 43.17417 |
| 반도체 제조업            | 321   | 91,906  | 3,852,534 | 41.9182  |
|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| 65    | 4,164   | 172,630   | 41.45773 |
| 석탄 광업              | 5     | 3,630   | 148,884   | 41.01488 |
| 1차 철강 제조업          | 1,366 | 78,595  | 3,177,962 | 40.43466 |
|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 | 63    | 9,283   | 372,441   | 40.12076 |
| 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| 259   | 14,730  | 560,580   | 38.05703 |
| 알콜음료 제조업           | 94    | 6,662   | 251,552   | 37.75923 |
|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    | 378   | 39,566  | 1,443,547 | 36.48453 |
|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| 271   | 22,523  | 784,009   | 34.80926 |
| 화학섬유 제조업           | 72    | 4,351   | 150,214   | 34.52402 |
|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 | 103   | 9,235   | 312,472   | 33.83563 |
| 평균                 | 267   | 28,585  | 1,272,513 | 42.97197 |

주 1) 산업분류 3레벨적용

2) 1인당급여액의 경우 급여액에서 종사자수를 나눈 수치임

자료 : 통계청, 광업·제조업조사

-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과 전국 평균 급여액 상위 산업 간의 급여차이 존재
  -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의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을 살펴보면 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, 알콜음료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  - 전국 상위 20위까지의 산업과 충북 상위 20위까지의 1인당 급여액 평균은 약 7.7백만원의 차이가 발생
    - 전국 평균 : 약 43백만원 → 충북 평균 : 약 35.3백만원
  -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9백만원, 20위 산업간 차이는 약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
    - 1위 → 전체 : 석유정제품제조업 > 충북 : 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
    - 20위 → 전체 :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> 충북 :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- 또한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업종이 전국 급여액 상위 업종에 포함되어 있더라

## 도 임금 차이 발생

- 전체 임금상위 산업 중 충북지역 상위 산업과 매칭되는 산업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 등 2개 산업임
  -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경우 전국평균 급여액은 약 49백만원 이지만 충북지역에 서의 급여액은 약 45백만원으로 약 3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함
  -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에는 충북지역 평균임금은 약 30백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41 백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함

< 13>

1

( 20 )

(단위 : 개, 명, 백만원)

| 200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산업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체수 | 종사자수   | 급여액(백만원) | 1인당급여액   |
| 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13   | 1,361  | 65,704   | 48.27627 |
|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   | 890    | 40,329   | 45.31348 |
| 알콜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| 898    | 37,908   | 42.21381 |
|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; 광학기기 제외 | 17   | 1,395  | 54,895   | 39.35125 |
| 시멘트, 석회,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93   | 4,146  | 156,706  | 37.79691 |
|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4    | 341    | 12,814   | 37.57771 |
| 금속 주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| 525    | 19,726   | 37.57333 |
|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         | 65   | 4,427  | 160,367  | 36.22476 |
|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   | 3,991  | 141,956  | 35.56903 |
|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12   | 469    | 15,829   | 33.75053 |
|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46   | 2,528  | 82,962   | 32.81725 |
|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17   | 956    | 31,122   | 32.55439 |
|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| 4,936  | 160,399  | 32.49575 |
| 전자부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3   | 12,429 | 401,227  | 32.28152 |
|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36   | 1,010  | 31,981   | 31.66436 |
|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| 395    | 11,939   | 30.22532 |
|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   | 5,938  | 179,026  | 30.14921 |
| 반도체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   | 11,214 | 336,331  | 29.99206 |
|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90   | 3,595  | 106,948  | 29.7491  |
|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8    | 218    | 6,473    | 29.69266 |
|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   | 3,083  | 102,732  | 35.2634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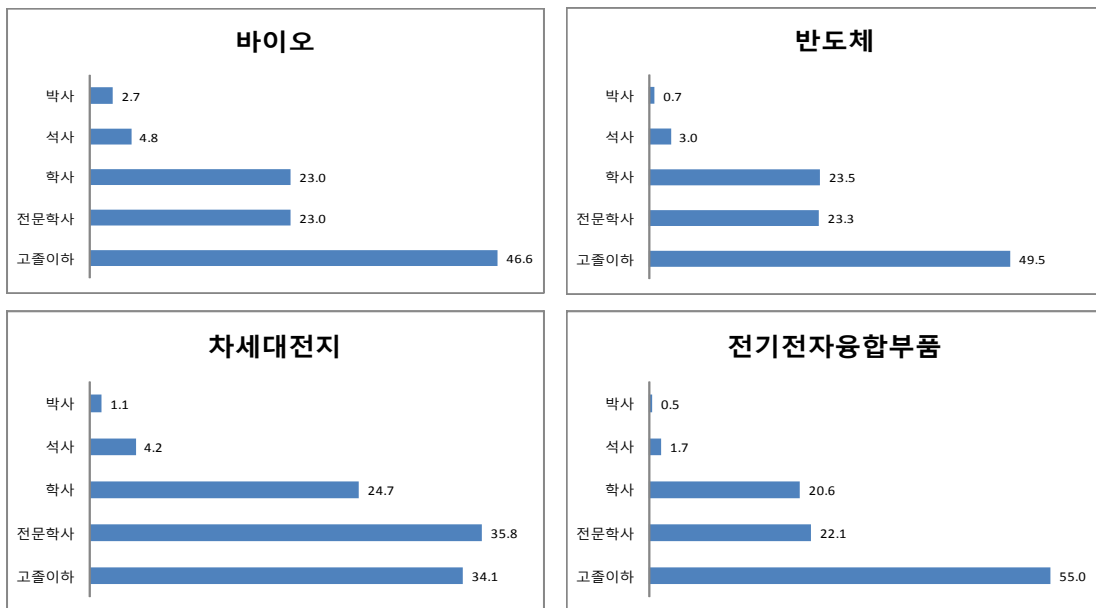
주 1) 산업분류 3레벨적용  
 2) 1인당급여액의 경우 급여액에서 종사자수를 나눈 수치임  
 자료 : 통계청, 광업·제조업조사

-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고졸이하의 저학력 인력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

< 10>

- /

(단위 : %)



자료 : 충북테크노파크, 2009 충북 전략산업기술인력 수급현황 조사보고서, 2010



Chung  
Buk  
Vision  
2012

# 04

## 미스매치의 파급효과

# 04

## 미스매치의 파급효과

-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는 단기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의 토대라 할 수 있음

< 11 >



자료 :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, 2010, 재구성

- 인적능력저하 : 청년층의 미스매치가 고착화되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취업의욕 및 자신감 감소 등의 개인의 인적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
- 외부유출 : 충북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도내 보다는 역외에서 구직을 하려는 인력이 늘어날 수 있음
  - 전문대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: 도내 56.2% > 도외 43.8%
  - 대학교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: 도내 36.3% < 도외 63.7%

| 구분 | 전문대    |        |         |    | 대학교    |        |         |    | 합 계    |        |         |   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|
|    | 취업자    | 지역내 근무 | 지역내 취업률 | 순위 | 취업자    | 지역내 근무 | 지역내 취업률 | 순위 | 취업자    | 지역내 근무 | 지역내 취업률 | 순위 |
| 서울 | 13,678 | 10,893 | 79.6    | 2  | 36,292 | 27,366 | 75.4    | 2  | 49,970 | 38,259 | 76.6    | 2  |
| 부산 | 11,880 | 8,860  | 74.6    | 4  | 16,868 | 10,294 | 61.0    | 5  | 28,748 | 19,154 | 66.6    | 5  |
| 대구 | 12,322 | 8,220  | 66.7    | 6  | 5,145  | 2,683  | 52.1    | 8  | 17,467 | 10,903 | 62.4    | 6  |
| 인천 | 6,210  | 2,963  | 47.7    | 14 | 2,774  | 790    | 28.5    | 15 | 8,984  | 3,753  | 41.8    | 13 |
| 광주 | 7,938  | 5,222  | 65.8    | 7  | 7,166  | 4,131  | 57.6    | 6  | 15,104 | 9,353  | 61.9    | 7  |
| 대전 | 7,097  | 4,190  | 59.0    | 9  | 7,945  | 3,804  | 47.9    | 10 | 15,042 | 7,994  | 53.1    | 9  |
| 울산 | 2,444  | 1,708  | 69.9    | 5  | 1,651  | 1,169  | 70.8    | 3  | 4,095  | 2,877  | 70.3    | 4  |
| 경기 | 44,486 | 19,269 | 43.3    | 15 | 20,582 | 7,119  | 34.6    | 13 | 65,068 | 26,388 | 40.6    | 15 |
| 강원 | 4,745  | 2,687  | 56.6    | 10 | 8,755  | 3,358  | 38.4    | 11 | 13,500 | 6,045  | 44.8    | 11 |
| 충북 | 5,364  | 3,015  | 56.2    | 11 | 7,979  | 2,897  | 36.3    | 12 | 13,343 | 5,912  | 44.3    | 12 |
| 충남 | 6,070  | 2,254  | 37.1    | 16 | 16,468 | 3,461  | 21.0    | 16 | 22,538 | 5,715  | 25.4    | 16 |
| 전북 | 6,448  | 4,181  | 64.8    | 8  | 9,214  | 4,929  | 53.5    | 7  | 15,662 | 9,110  | 58.2    | 8  |
| 전남 | 8,902  | 4,466  | 50.2    | 12 | 5,428  | 2,722  | 50.1    | 9  | 14,330 | 7,188  | 50.2    | 10 |
| 경북 | 13,550 | 6,566  | 48.5    | 13 | 14,301 | 4,878  | 34.1    | 14 | 27,851 | 11,444 | 41.1    | 14 |
| 경남 | 8,681  | 6,755  | 77.8    | 3  | 7,444  | 4,970  | 66.8    | 4  | 16,125 | 11,725 | 72.7    | 3  |
| 제주 | 2,793  | 2,441  | 87.4    | 1  | 1,265  | 959    | 75.8    | 1  | 4,058  | 3,400  | 83.8    | 1  |
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교육통계서비스, 2009

- 실업자수의 증가 : 청년층의 미스매치가 지속될 경우 이는 실업자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켜 지역 상권 및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남
  -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%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성장률은 2%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<sup>3)</sup>
- 지자체 재원낭비 : 충청북도는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제공, 재정지원,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3) 고용노동부, 노동경제용어 길라잡이, 2004

| 대상<br>내용  |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서비스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보·인프라 제공 | · 충청북도취업박람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충청북도취업박람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정 지원     | ·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<br>· 기업맞춤형인턴제<br>·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<br>·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<br>· 외국인투자기업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       | · 지역혁신센터지원<br>· BK21<br>·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<br>·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기업맞춤형인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네트워크 구축   | · 충북지방고용심의회<br>·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<br>·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<br>·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<br>·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<br>· 지역고용지원협의회 | · 충북지방고용심의회<br>·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<br>·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<br>·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<br>· 지역고용지원협의회<br>·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심사위원회 | · 미래신산업인력양성<br>· 문화관광아해설사육성<br>· 여성인턴제사업<br>· 농산업인턴제사업 | · 충북지방고용심의회<br>·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<br>·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<br>·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<br>·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<br>· 지역고용지원협의회<br>·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심사위원회 |

자료 : 충청북도,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, 2011, 재구성

- 기업의 생산능력 저해<sup>4)</sup> :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기존 산업인력의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 기반을 붕괴할 수 있음

4) 삼성경제연구소,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, 2010

# 05

##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

1.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
2.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 
‘청년인력 코디네이터’ 인력 확보
3.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
4.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‘괜찮은 일자리’ 의 확충
5.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
6. ‘중소기업백서’ 발간 및 ‘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’  
등을 통한 정보제공
7. 청년취업통계DB 구축
8.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
9.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
10.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

# 05

##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

### 5.1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

-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금측면에서 비교적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음
  -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>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
  -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 9백만원, 20위 산업간 차이는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
  - 전체 임금상위 산업 중 매칭되는 산업(기초화학물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) 등도 임금차이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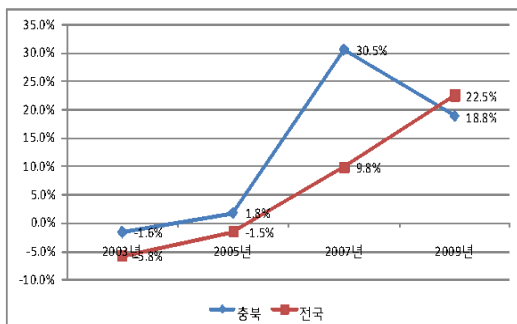
< 16 > 1

| 지역 |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     | 1인당 급여액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울산 |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| 약71백만원  |
| 전남 |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    | 약68백만원  |
| 경남 | 철도 장비 제조업         | 약59백만원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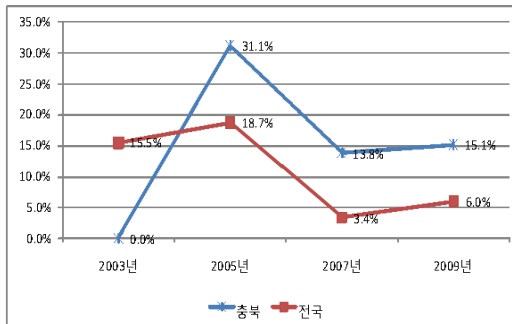
주 1) 산업분류 3레벨적용  
 2) 1인당급여액의 경우 급여액에서 종사자수를 나눈 수치임  
 자료 : 통계청, 광업·제조업조사

-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업자체적, 지리적, 사회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산업 이외의 고임금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 여겨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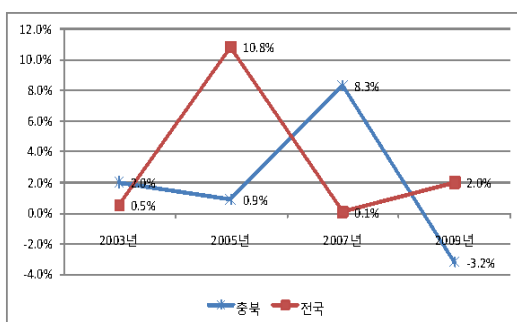
충북의 바이오산업 고용증가율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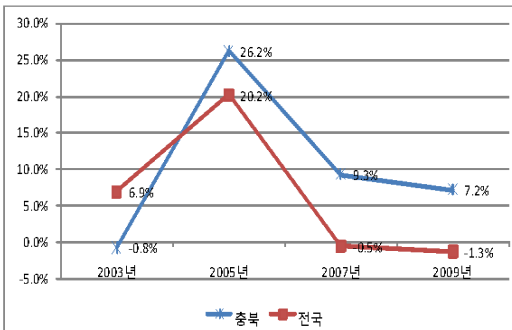
충북의 반도체산업 고용증가율 (%)



충북의 차세대전자산업 고용증가율(%)



충북의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고용증가율(%)



자료 : 충청북도, 2012년 충북 산업진흥계획, 2012

## 5.2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

### ‘청년인력 코디네이터’ 인력 확보

-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사업 간의 유사·중복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
-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업이 도(지자체)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투입과 산출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음
-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실행, 성과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
- 또한, 도 차원에서 전문적인 ‘청년인력 코디네이터’를 두어 청년층 인력양성사업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| 부처              | 사업명           | 사업과제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담당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교육<br>과학<br>기술부 | 이공학 교육활성화사업   | 공학교육혁신센터                  | 충주대학교<br>영동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공학교육인증제      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문제 해결형 인력양성  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WISE 프로그램지원   | 여성과학기술인 육성·지원사업           | 한국교원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WCU사업         | WCU사업        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BK21          | BK21         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<br>건국대학교(충주)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산학연협력체계 활성화지원 | 커넥트 코리아 사업   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   |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<br>사업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지역기초연구활성화     | 지역혁신 인력양성                 | 충주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지식<br>경제부       |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*   | 의료기기직무의 현장실무능력 향상<br>프로그램 |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<br>((현)충북<br>평생교육진흥원)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반도체·태양광 기반기술 인재육성<br>프로그램 | 충북<br>평생교육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  |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               | 건국대학교(충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지식정보보안 인력양성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SW 전문인력양성                 | 지식산업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산업현장 전문인력역량강화 | SW융합인력전문교육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 |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               | 충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지역산업 인력양성     | 지역산업 인력양성                 | 충북 T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| 무역인력 양성       |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             | 건국대학교(충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자료 :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기수립된 인력양성 로드맵 실행방안 도출, 2011 재구성

### 5.3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

- 현재 도내에는 혁신도시, 첨단의료복합단지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고급인력의 활용이 중요시되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음
- 이러한 사업들은 초·중급 인력보다는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사업들의 인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
- 또한 지역대학들은 대학 및 학과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
- 따라서 각 사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및 특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

지역 내 고급인력의 수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
- 그리고 석·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양성 및 이전기관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(가칭)교육과학정보통신융합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

#### ○ 혁신도시

| 기관수 | 이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1  |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한국교육개발원,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기술표준원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소비자원, 과학기술기획평가원, 법무연수원, 중앙공무원교육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고용정보원 |

자료 : 청와대, 정책소식지, 2011.5.27

#### ○ 첨단의료복합단지

| 기관수 | 이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   | 식품의약품안전청, 식품의품안전평가원, 질병관리본부, 국립보건연구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|

자료 :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, <http://www.kbio.kr/>

#### ○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

| 주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초과학연구원설립, 중이온가속기 구축, 글로벌 연구기반조성, 글로벌비즈니스환경 구축 |  |

자료 :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, <http://www.isbb.go.kr/>

## 5.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‘괜찮은 일자리’의 확충

-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구직자의 기대수준을 충족해 줄 수 있는 ‘괜찮은 일자리’의 부족임
- 이러한 구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, 첨단의료 복합단지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‘괜찮은 일자리’라 불릴 수 있는 대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

- 또한 기업을 유치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기업이 충북지역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직업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인력채용 유인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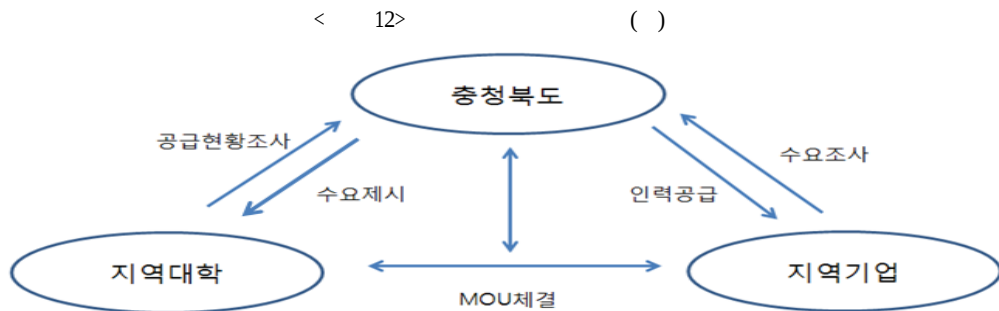
: \_\_\_\_\_

| 구분                 | 해당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IT 지원군             | 정보통신정책연구원<br>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             | 핵심키워드: IT 컨버전스<br>컴퓨팅, 네트워킹 등 기술의 제품 및 서비스와 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깃기업: IT기술 관련 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력개발<br>교육군        | 한국교육개발원<br>한국교육과정평가원<br>한국고용정보원          | 핵심키워드: 스마트러닝<br>E-learning, E-training 등 정보기술을 활용, 학습 및 가상훈련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깃기업: 에듀윌, (주)능률교육, SKC&C 등 E-러닝 사업 관련<br>52개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학기술<br>공공서비스<br>군 | 한국가스안전공사<br>한국소비자원<br>기술표준원<br>과학기술기획평가원 | 핵심키워드: 수소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<br>수소에너지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능평가 및 GHG<br>(Green House Gas) 검증업무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깃기업: 퓨얼셀파워, GS퓨얼셀, 오선텍 등<br>수소에너지 생산 관련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충청북도, 혁신도시의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연구용역, 2011

## 5.5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

-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양성하는 인재에는 분명 미스매치가 존재함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력수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여 WIN-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인력수급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, 충청북도, 충청북도교육청,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공생발전업무협약(11.12.17)의 연장선상에서 고졸인력 뿐 아니라 대졸인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



**교육과학기술부, 충청북도, 충청북도교육청,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4개 기관  
공생발전업무협약 체결(11.12.07)**

○ 협약내용

- 학력이 아닌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고졸 인력을 육성하며,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활동 확산에 협력한다.

- 또한, 보다 광범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미스매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짐

: ‘( )’

- 최근 구직자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적성이나 발전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임금이나 명성 등의 외재적 가치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임
  - 이같은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잦은 이직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는 미스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음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, 교육청, 지역기업협의회 등 뿐만 아니라 일선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, 학부모, 전문가협회 등이 연계된 ‘(가칭)청년 취업지원 지역사회협약’을 체결하여 청소년기부터 미래 직업수요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심화되고 있는 미스매치를 완화 시켜야 할 것임

## 5.6 ‘중소기업백서’ 발간 및 ‘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’등을 통한 정보제공

- 구인·구직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는 고용노동부 ‘워크넷’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사이트, 대중매체, 친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음
-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정보를 확인하였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‘중소기업백서’를 발간하여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함
- 또한 ‘일자리 의무등록제도’를 추진하여 일자리 발생시 DB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여 구인·구직자간 정보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: \_\_\_\_\_ ( DB, 11.07.01)

- 본 백서에서는 중소기업의 동향 및 현황 중요성 등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
- 주요목차
  - 제1부 최근 중소기업 동향
  - 제2부 경제사회를 떠받치는 중소기업
  - 제3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중소기업

## 5.7 청년취업통계DB 구축

- 현재 고용 및 노동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확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- 고용관련 통계는 지역의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

- 따라서 충북지역 자체적으로 고용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

: \_\_\_\_\_ ( \_\_\_\_\_ , \_\_\_\_\_ )

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서 시·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·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·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## 5.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

-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용정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및 잡코리아, 사람인 등 민간기관 사이트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임
- 하지만 제공하는데 있어 그 범위가 커 충북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
  -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사이트 워크넷이 정보의 제약이 상당하고 질보다는 양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<sup>5)</sup>
- 따라서 충북의 특성을 살린 구인·구직 및 창업, 인턴제, 채용설명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

: \_\_\_\_\_ ( \_\_\_\_\_ )

### ○ 주요업무

- 구인·구직 상담 및 연결, 전직지원, 토털서비스 제공
- 일자리 정보 통합 전상망(인력은행) 운영
- 취업상담실 운영 : 구인·구직 상담 및 알선, 동행면접, 채용대행서비스 등
- 일자리발굴 : 년 4회(기업 일자리 현황조사 및 발굴)
- 전직 서비스제공 : 퇴직자, 전직희망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
- 취업 및 창업교육, 알짜기업 알리미, 기업 현장탐방투어, 채용설명회 등

5) 이투데이, 박재완 ‘노동의 역설’ 심각하다, 2011.05.27 내용 발췌

## 5.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

- 현재 도내에는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던 인력수급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로 수요와 공급차원 모두에서 우수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

: ‘\_\_\_\_\_’(\_\_\_\_\_)

-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
- 지자체·테크노파크가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
- 사업내용
  - 대학생 10,890명(100개 대학)과 604개 기업이 참가를 신청하여 최종 4,500여명의 대학생이 325개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기업분석을 실시함
  - 충북지역실적 : 22개기업에 249명의 대학생이 참가
    - 실 수요자인 기업·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2012년에 참여대상을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까지 확대실시

## 5.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

- 현재 청년층 인력 수급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자생력의 부족임
  - 이로 인하여 임금 및 고용환경 등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됨
  - 그리고 비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
  - 또한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하여 취업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
-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·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고용시장의 현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- 구체적으로 중·고등교육기관에는 일자리관련 전문컨설턴트 등을, 지역대학에는 학교 축제 시 지역기업CEO, 지자체관계자,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한 선배 등을 특강형식으로 지원해야 함
- 이와 더불어, 가치관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강의 지원도 필요함
- 또한, 현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등을 학교 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

## 참고문헌

- 고용노동부(2004), 노동경제용어 길라잡이
- 고용노동부(2010),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
-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년도
- 고용노동부,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 년도
- 고용노동부(2012), 해외노동동향
- 교육과학기술부, 2009 대학산학협력백서, 2009
- 대한상공회의소(2006), 중소기업 인력난 원인과 고용증대방안
- 반정호 외(2005),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
- 부산발전연구원(2011),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분석 및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
- 삼성경제연구소(2009), SOC 투자의 신조류, 스마트 SOC
- 삼성경제연구소(2009),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
- 삼성경제연구소(2010),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
- 삼성경제연구소(2010),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
- 산업연구원(2010), 기업의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
- 이정섭(2011),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불일치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
- 중소기업연구원(2005), 중소기업 인력유입방안에 관한 연구 -핵심인력을 중심으로-
- 중소기업정책연구DB(2011), 2011년 일본 중소기업 백서
- 지역발전위원회(2012), 2012년 지역발전 주요통계자료집
- 청와대(2011), 정책소식지, 2011.5.27
- 충북발전연구원(2011), 충북경제 성장요인과 발전전략
- 충청북도(2011),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
- 충청북도(2011), 2011년 일자리창출계획
- 충청북도(2011), 혁신도시의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연구용역
- 충청북도(2012), 2012년 충북 산업진흥계획
- 충청북도(2011), 보도자료 -충청북도 고졸채용 및 교육기부 활성화에 적극 나서-
-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(2011),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학생 취업육구 조사분석

충북테크노파크(2010), 2009 충북 전략산업기술인력 수급현황 조사보고서  
충북테크노파크(2011),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기수립된 인력양성 로드맵 실행방안 도출  
통계청(2011),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
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 
통계청, 광업·제조업조사  
통계청,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  
통계청,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
한국교육개발원, 교육통계 각 년도  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, <http://www.isbb.go.kr/>  
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, <http://www.kbio.kr/>  
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, <http://www.jbba.kr/>

# Chung Buk Vision 2012

## | 연구진

---

김 진 덕 ·

---

2012 - 01

##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

발행인 | 정낙형

발행일 | 2012년 5월

발행처 | 충북발전연구원

전화 043-220-1107~8 전송 043-220-1199

360-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번지(문화동 15)

ISBN | 978-89-6455-070-0 93320

\*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.

\*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 
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.

# Chung Buk Vision 2012



CHUNGBUK RESEARCH INSTITUTE.

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번지(문화동 15)

자료문의 TEL : (043)220-1107~08 / FAX : (043)220-1199 / [www.cri.re.kr](http://www.cri.re.kr)

